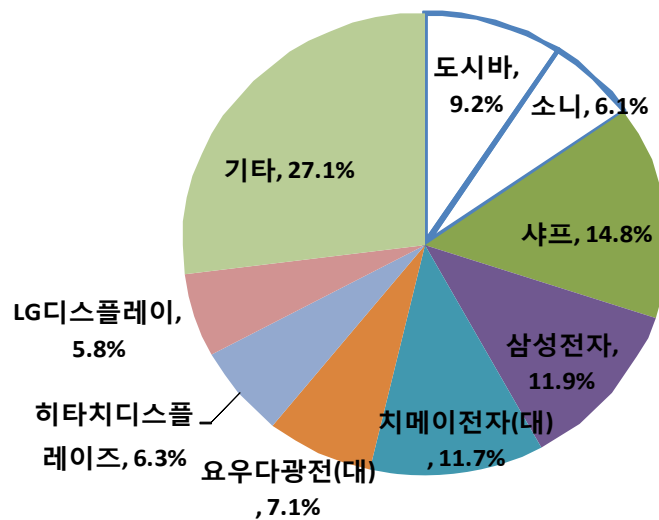


## 도시바-소니, 휴대기기용 중소형 LCD 사업 통합 추진

최근 도시바-소니, 홍하이(대만)-히타치 등 휴대기기용 중소형 LCD 시장에서의 대기업간 합종연횡에 따라 이 부문에서의 치열한 경합이 예상. 도시바-소니는 휴대기기용 중소형 LCD사업의 통합을 추진하고, 향후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의 개발·양산에도 참여할 계획

- 휴대기기용 중소형 LCD패널 시장에서 세계 4위 업체 도시바(東芝)와 7위 업체 소니가 통합법인 설립을 추진(닛케이 6/7)
- 양사는 6월 중에 기본합의안을 마련한 후 연내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중소형 LCD의 양산을 도모
  - 궁극적으로는 삼성이 세계시장의 80%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(OLED, 차세대 디스플레이)의 개발·양산에도 참여할 계획
- 신설법인에는 민관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1,000억 엔 규모(전체 출자액의 70~80%에 해당)의 투자를 실시
  - 산업혁신기구는 일본의 차세대 성장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9년 7월에 정부출자 920억 엔, 민간출자 100.1억 엔, 정부보증 8,000억 엔 규모로 설립(최대 9,000억 엔의 출자 가능). 지금까지 10여건의 지원이 이루어졌는데, 이번에 최초로 대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

그림 1. 중소형 액정패널의 기업별 비중(2010년 현재)



주: 2010년 전세계 시장규모는 217억 5,000만 달러로 2013년까지 두 자릿 수 성장이 지속될 전망

자료: 日本經濟新聞(2011.6.7~8)

- 일본정부는 2010년 6월 「산업구조비전」을 마련하고 국제경쟁력 강화(또는 위기 타개)를 위한 자국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전환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는데, 금번 산업혁신기구를 통한 도시바와 소니의 통합 지원은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판단
- 한편, 중소형 LCD 시장에서는 세계 3위인 치메이(奇美)전자를 2010년에 인수한 대만의 홍하이(鴻海)정밀공업이 6위인 히타치디스플레이즈와 제휴관계를 맺고 도쿄 인근의 지바현에 합작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바, 이러한 업계내 합종연횡에 따라 향후 이 부문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

#### 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1. 6. 7~8)

産業革新機構 홈페이지([www.incj.co.jp](http://www.incj.co.jp))